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및 부모교육 병합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예비연구[†]

Jee Eun Lee

한 미 령

장은진[‡]

Phillips Academy Andover, USA 대구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병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로, 병합 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기술 향상 및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동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만 8세부터 11세까지의 초등학교 6명을 대상으로 주 2회(1시간 30분) 총 10 회기 동안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주 1회(2시간) 총 4회기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병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조절과 같은 사회기술 역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한편 부모의 인지적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변화를 보였지만, 불안감/좌절감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어: 다문화가정 아동, 정신 건강, 집단 미술치료, 부모교육, 병합치료

[†] 본 연구는 2010년 Phillips Academy의 Martin Luther King Jr. grant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은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산 14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el: 042-828-3312, Email: ejchang@kbtus.ac.kr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한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장벽이 점차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국제결혼이 자유로워지면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 여성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신민자, 이진숙, 2008).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여 년간 6,000건에서 43,000건으로 약 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전체 혼인 건수의 13.6%에 해당된다(통계청, 2008). 또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여 년간은 국제결혼이 11,605건에서 33,300건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으며 이 수치 역시 전체 혼인건수의 10.8%에 해당된다(통계청, 2010).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문화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언어적·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때로는 경제적 곤란과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연구들은 이주 여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관한 연구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종종 정체성의 문제와 문화 및 언어차이로 인한 학습부진, 사회부적응 등을 경험한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정신건강 향상 프로그램들이 소개된바 있는데, 특히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미술'을 활용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선희, 2010; 박수

정, 최연실, 2009; 신민자, 이진숙, 2008).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미술 활동을 통해 심리적 상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접근법이다(주리애, 2000; 김선현, 장혜순, 2008). 미술치료는 정서적인 문제를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키고, 억제된 감정을 심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언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이다. 즉 미술 활동이라는 능동적인 창작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향과 감정, 욕구 등을 표출함으로써 본인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통찰을 돕고 통합된 자기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집단으로 실시될 경우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 등을 함께 개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부모를 치료 과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문화 적응이라는 독특한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아동 중심의 치료관점에서 벗어나 부모를 보다 적극적인 협력자로 끌어들이 새로운 치료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다(하은혜, 2000).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기능이 향상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nastopoulos, Shelton, DuPaul, & Guevremont, 1993). 부모로 하여금 공동 치료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빠르게 확

산되고 있다(예, 강옥려, 2007; 윤선영, 구영진, 전진아, 현명호, 김효창, 2007; 양옥경, 김연수, 2003; 이숙, 2006). 아동의 미술치료와 병합된 부모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미술작품 속에 투사된 아동의 심리상태와 사회적 적응력,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을 인식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기능적 대처행동 즉 양육태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10회기의 아동용 프로그램과 4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비 연구 수준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아동 6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여 아동의 성별은 남자 2명, 여자 4명이었고, 학년은 초등학교 2학년 3명, 3학년 1명, 4학년 1명, 5학년 1명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두 쌍의 남매(A와 C, B와 D)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1명의 일본인, 1명의 대만인, 2명의 중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이었다.

아동 프로그램은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2회(1회기에 1시간 30분) 총 10회기 동안 실시되었다. 부모교육은 어머니들과 치료자, 보조 치료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1주일에 1회씩(1회기에 2시간)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자아존중감 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검사지를 사용했는데, 본 척도는 아동의 일반적 자존감과 사회, 가정, 학교 등에서 경험하는 자존감을 평가할 수 있다.

사회 기술 평정 척도. Gresham과 Elliott(1990)의 사회 기술 평정 척도를 문성원(2003)이 번안, 수정한 척도 중 'SSRS-학생용'을 사용하였는데, 본 척도는 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조절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효능감 척도.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척도를 신숙재(199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부모 효능감의 인지적, 정서적(불안감) 차원과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등을 측정한다.

자료분석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참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기술,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평가하였다. 사례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비모수 검증법인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5.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결 과

병합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먼저 기존에 소개된 다문화 가정 아동용 프로그램과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10회기의 아동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내용, 준비물 등은 표1에 제시하였다.

1회기는 사전 진단으로 KFD(Kinetic Family Drawing, 가족활동화),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기술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규칙을 정하였다.

2회기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름이 주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이름꾸미기'를 진행하였다. 완성 후, 그림을 모아놓고 각자 자신의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과 연결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다. 토의 활동으로는 활동 작업을 하기 전과 후 자신의 이름에 대한 느낌을 비교해 보고 이름을 나타낸 그림에서 나타난 상징이나 의미에 대해서도 서로 질문하고 느낌을 나눈다.

3회기는 등글게 앉아 집단원 각자 한 장의 종이 위에 자유롭게 20분정도 그림을 그리다가 리더가 "옆으로"라고하면 그림을 옆 사람에게 돌려서 그리는 '그림 돌려 그리기'를 진행한다. 그림을 받은 옆 사람은 받은 그림에 자신이 원하는 형태와 색깔을 추가하여 5분 정도 그림을 그린다. 다시 리더의 "옆으로"하는 지시에 따라 집단원 모두 돌려 그리기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하다가 자신의 그림이 돌아오면 마무리한다. 활동 과정에

서의 어려움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고, 특히 본인의 그림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나눈다. 그림에서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및 배경에 대한 느낌들을 나눈다.

4회기는 '사포를 이용한 집단난화'를 진행한다. 리더는 사포6장을 붙여 뒷면에 번호를 적고, 붙여 놓은 큰 사포 앞면에 하나의 형태를 그린다. 이때 집단원들에게는 그림의 형태를 모르게 해야 하므로 리더는 그린 그림을 다시 분리하여 각자가 사포조각을 선택하게끔 나누어주고 집단 활동을 시작한다. 집단원은 본인이 선택한 사포에 그려진 것을 보고 각자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한다. 각 집단원이 그린 사포를 모아 리더는 뒷면의 숫자 순서대로 맞추어 원래의 형태를 완성한다. 연결된 전체 사포 그림을 보고 각자의 작품을 소개하며, 집단 그림 속 자신의 그림 및 함께 완성한 전체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눈다. 이 때 가능하다면 그림에 나타난 이미지와 자신의 현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5회기는 밀가루 반죽을 통한 집단 활동 및 체계진단을 진행하였다. 집단원 각각 다른 색깔의 물감을 선택하여 물에 섞고, 마른 밀가루에 물을 천천히 섞어 가면서 반죽한 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든다. 전지 위에 각자가 만든 작품을 원하는 위치에 먼저 배치한 후, 배치된 작품을 보고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말하지 않고 각자 위치를 수정한다. 이후에는 집단원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작품의 위치를 바꾼다. 리더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나누며 피드백을 준다. 집단원들은 작업을 하는 과정이나 전, 후의 느낌을 나누며, 특히 서로간의 상호작용 느낌을 나눈다. 활동에서 집단원 각자는

어느 정도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참가 했는지 생각해 보고 현재 집이나 학교에서 자신은 어떠한지를 표현한다. 이 때 자신의 언어적 활동과 비언어적 활동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

6회기에서 리더는 오늘의 미술활동 제목은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어요’라며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며, 집단원들이 서로 토론하도록 하였다. 집단원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단원의 공통의 어려움을 찾아낸다. 리더는 배의 앞머리, 뒤, 중간 등의 그림을 집단원에게 제시하고, 집단원 각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집단원은 다른 집단원들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나누고,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 리더는 다 그려진 집단원의 그림들을 배의 앞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이어 붙인다. 집단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린 그림과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후 각자가 표현한 갈등이나 어려움, 또는 그것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눈다. 리더는 집단원 서로서에게 공감과 지지적인 피드백을 주도록 격려한다.

7회기는 집단 공동 미술치료 작업인 ‘무인도 체험’을 진행한다. 6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먼저 전지에 섬을 그린다. 그 섬을 무인도라 하고 섬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또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토의 후 자신들이 원하는 섬을 만들어 간다. 작품을 완성한 후, 그 섬에 대해 표현하며, 집단원끼리 작업 활동에서 느낀 것 등에 대해 나눈다. 평소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거나 각자 자신에게 소중한거나 필요한 존재나 대상을 알게 됨으로써 자아정체감과

자아개념 확립에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집단원들을 이해하고 협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8회기에서는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나’를 표현하도록 한다. 적극적이고 차분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떠올려보고 여러 모습이나 직업 중 우선 한 가지만 선택한 후, 떠올린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림이나 콜라주로 표현한다. 완성한 후,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한 후 원하는 모습의 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를 생각하고 표현한다. 작업을 하는 과정과 하고 난 후의 감정을 나누는데, 이 때 집단원 서로가 서로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격려하며, 리더도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9회기에서는 ‘선물 상자 만들어 나누기’를 진행한다. 집단 리더는 미리 집단원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집단원 각자가 선택하게 하여, 그 사람을 위한 선물상자를 만든다. 이 때 만약 자신의 이름이 나오면 다른 집단원을 선택하며, 집단원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후, 그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선물상자를 만든다. 20~30분 정도 만드는데, 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나 리본, 구슬, 방울 등 다양한 꾸미기 재료를 준비한다. 각자가 준비한 선물의 의미를 언어로 표현함과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함께 표현하며 선물을 전한다. 이 때 그 선물을 택한 이유도 함께 설명하도록 하며, 선물을 전할 때와 받았을 때의 느낌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10회기는 사후 진단으로 KFD, 자아존중감 및 사회기술검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그동안 실시하였던 전체 회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주어 아

이들이 기억하도록 도움을 준다. 1회기에 정한 규칙에 따라 점수를 알려주고 미리 정한 선물 목록에 근거하여 시상을 함으로써 규칙준수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하였는데, 각 회기별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표와 특성을 설명하고, 부모가 느끼는 아동의 문제는 아동만의 책임이 아니고 아동을 대하는 부모의

역기능적인 태도와 성격특성 등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양육의 어려움 뿐 아니라 한국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제공한다.

2회기에서는 미술치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발달연령에 초점을 둔 심리, 사회적 발달, 인지적 발달특성 및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우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

표 1. 아동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회기	활동	목표	준비물
1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규칙 정하기 KFD, 사전점사	사전 진단, 집단참여동기 높이기	종이, 연필, 지우개, 검사지
2	이름 꾸미기	집단 초기의 어색함 감소 자신의 존재 의미와 중요성의 인식	도화지, 크레파스, 색연필, 파스텔, 색 사인펜, 수채화 물감 등
3	그림 돌려 그리기	그림에 대한 부담감 감소 집단원간의 친밀감 도모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향상	도화지, 크레파스, 색연필, 파스텔, 색 사인펜 등
4	사포그림	자존감과 성취감 향상, 협동심과 소속감 향상, 자기 표현 능력 개발	사포, 크레파스, 파스텔, 스카치테이프 등
5	밀가루 반죽	부드러운 매체의 유연성을 경험 심리적 신체적 이완 집단원간의 상호작용 관계 인식	밀가루, 반죽 가능한 넓은 사발이나 접시, 물, 수채화 물감, 나무젓가락, 캔트지 천지, 식용유 등
6	따로 또 함께 집단 응집화	공통의 문제 인식 및 함께 나누기 지지와 수용을 통한 집단 정체성 및 응집성 향상	도화지, 스카치테이프, 크레파스, 색 연필, 색 사인펜, 수채화 물감 등
7	무인도 체험	집단원 간의 응집력 향상, 상호작용 활성화, 자아정체감 형성, 독창성과 상상력, 창조력 증진	전지, 크레파스, 색연필, 색 사인펜, 수채화 물감, 색지, 잡지책, 풀, 가위
8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나	자신의 희망점점, 미래모습 설계 자기 이해와 자아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 형성	색지, 색종이, 학종이, 잡지, 크레파 스, 색연필, 색 사인펜 파스텔, 잡지 책, 풀, 가위, 명상음악 등
9	선물상자 만들어 나누기	긍정적인 피드백 나눔 긍정적 에너지 경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지지경험 증진 다양한 표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독창 성 향상	색A4지, 색종이, 학종이, 크레파스, 색연필, 색 사인펜, 구슬, 스티커, 글 루건, 스펅지, 빈과자상자 등
10	KFD, 사후점사, 시상과 선물주기	사후 진단 규칙점점을 통한 보상제공	종이, 연필, 지우개, 검사지, 미리 준 비한 선물들

적인 내용을 먼저 교육한 후, 이후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겪게 되는 학습영역에서의 어려움과 교육 관계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갈등, 문화차이로 겪게 되는 혼란 등 자녀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3회기에서는 실제 아동이 표현한 KFD를 참고 하여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상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부모가 그동안 행한 비효율적인 양육태도에 대해서 다룬다. 부모는 치료자로부터 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아동이 갈등을 겪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받는다.

4회기에서 치료자는 부모에게 지난 부모교육 후 미술치료 활동 중 나타난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무인도 체험’, ‘선물나누기’ 등의 아동의 미술 작품과 아동의 치료 회기에의 집중, 치료자 혹은 집단원에 대한 언어와 태도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그동안 배운 양육방법과 태도를 적용한 후 힘들었던 점과 의문점 등에 대해 나누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만의 문제는 아님을 인식시키며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병합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병합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변화를 양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2참조). 병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 자기주장, 공감, 자기조절과 같은 사회기술 역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한편 부모의 인지적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변화를 보였지만, 불안감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비록 예비 연구 수준에서 이루어진 효과검증이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표 2. 아동 및 부모의 프로그램 사전-사후 효과검증 결과

평가 영역		사전(n=6)		사후(n=6)		Z
		M	SD	M	SD	
아동 정신 건강 지표	자존감: 일반	20.17	2.04	24.33	2.07	-2.21*
	자존감: 사회	28.50	3.20	36.67	2.07	-2.20*
	자존감: 가정	28.17	5.53	39.17	3.37	-2.20*
	자존감: 학교	21.17	3.92	30.00	6.78	-2.20*
	사회기술: 협동	29.50	4.55	37.00	1.90	-2.21*
	사회기술: 공감	31.50	5.96	40.83	1.83	-2.20*
	사회기술: 자기통제	30.33	5.39	39.33	3.78	-2.26*
	사회기술: 주장	31.67	5.32	40.00	3.35	-2.21*
부모	인지 효능감	24.17	6.88	32.00	1.26	-2.00*
양육	불안감	14.00	3.03	9.50	1.87	-1.79
효능	역할관심	9.00	1.55	11.67	1.51	-1.95

* $p < .05$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병합치료의 효과를 회기동안의 관찰, 사전 및 사후 KFD결과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1) A아동

초기에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감정표현도 없었으나 중반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재미있는 활동에는 잘 집중하였고 집단원들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사전 KFD에서는 집이라고 그린 교회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나 사후 KFD에는 아동 자신 외에 어머니가 그림 속에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참여뿐 아니라 부모병합치료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이해와 태도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것이 아동에게 전달되어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이 발달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2) B아동

초기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숨기려하는 등 집단의 활동에 방해를 줄 정도의 충동성과 과활동성을 보였으나, 이완회기 이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전검사 KFD에서 자신은 동생과 놀고 있고, TV를 시청하는 어머니를 그렸으나 아버지가 빠져 있었으며, 사후 KFD에서는 다른 가족성원이 없이 화면의 한쪽 면에 자신을 크게 그려 놓았다. 집단미술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긍정적 행동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여전히 가족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특징인 자기중심성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치료와 보다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잠재성이 사후 KFD에서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중심성 경향은 어머니가 동생인 아기만 돌보던 상황에서 B아동에게도 관심을 표현한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3) C아동

집단원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활동에 흥미와 집중력을 보이고 다른 아동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전 KFD에서는 바다 위에 배를 그렸지만 인물은 없었으며 매우 약한 필압으로 단조롭게 표현한 반면, 사후 KFD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인물이 등장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부모교육 후 매우 통제적이었던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겠으며, 가족 간의 상호작용도 다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4) D아동

아동은 집단과정 중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등 치료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집단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사전 KFD에서는 방에 엄마와 젖을 빠는 아기동생, 아빠, 남동생이 나란히 누워있고, 아동 자신은 따로 떨어져 주먹을 불끈 쥔 경직된 모습을 표현하였으나, 사후 KFD에서는 엄마와 남동생이 나란히 누워 있고 화면의 중앙에 아기동생을 안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였다. 사전 KFD에서 아동자신을 가족과는 멀리 떨어지게 표현하였으나 사후에는 어린동생과 함께 있는 자신을 어머니와 다른 가족 성원이 보도록 그렸다. 이는 동생을 돌보는 자신을 칭찬해 달라는 표현임과 동시에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나누거나 혹은 나누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이는 실제적인 집단 상호작용 경험 및 부모병합치료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5) E아동

아동은 활동초기 자신감이 없고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종결단계에서는 크게 웃기도 하고 즐겁게 작업에 임하였다. 사전검사 KFD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가족들을 표현하였지만 그 크기가 작았으며 세밀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후 KFD에서는 아버지와 오빠가 함께, 아동과 엄마가 함께 즐겁게 요리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사후 KFD에서 나타난 인물 크기의 변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존감의 향상을 반영하며, 아버지와 오빠, 엄마와 아동의 연합은 성역할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F아동

활동 과정 중 다른 아동과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전 KFD에서는 엄마는 썩크대에서 부엌일을 하고 아빠는 멀리 떨어져서 신문을 보고 있으며 자신은 화면의 중앙에 가장 크게 표현하였다. 사후 KFD에서는 가족이 야외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가족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사전 KFD에 비해 적극적인 가족 상호작용의 모습을 표현한 사후 KFD로 보아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와 부모 병합치료로 인해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병합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기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묘사한 질적 자료를 함께 고려한다면, 미술이라는 범문화적 도구를 매개로 문화적인 이질감을 버리고 좀 더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또래와의 수용적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존감 및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합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인지적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질적 보고를 참고하면, 부모는 그림의 해석을 통해 자녀의 심리와 가족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부모 효능감의 인지적 요인이 변화한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부모 효능감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부모역할의 관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자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수록 오히려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

려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후 프로그램의 수정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보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함께 한 미술치료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아동 집단 미술치료와 부모 교육의 병합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효과검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따라서 세계화 국제화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 결과들(박선희, 2010; 신민자, 이진숙, 2008; 박수정, 최연실, 2009)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사회성 향상 등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기술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한편 아동의 효과검증 결과는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기에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부모교육을 병행한 병합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실제적인 치료효과는 치료회기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확대되어 간접적인 치료 효과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의 아동 집단치료 프로그램과 4회기의 부모교육으로 이루어져서 치료회기가 짧은 한계를 가진다. 물론 아동들의 방학기간인 5주

안에 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는 점과 경제적 활동 등을 포함해 여러 여건상 부모님들이 시간 내는 것이 힘들다는 실제적인 제약 때문에 회기를 더 연장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특히 부모교육의 회기를 더 늘리거나 향후 사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추후 이루어진 부모들의 설문에서도 치료효과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방학 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게 한다면 부모효능감에서 양육에서의 불안감과 좌절감을 유의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수가 6명으로 적다는 점과 지역이 대도시인 서울 강동구라는 지역의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다른 다문화 가정, 특히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나 보편적인 다문화 아동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왜냐하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특성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인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로 갈수록 한국에 온 지가 오래되지 않은 동남아 지역에서 온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연구에서는 보다 큰 집단이나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다문화 가정 사례로 확대하여 치료 효과를 반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이 없이 처치집단만을 대상으로 효과검증을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서울지역에서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이 매우 드물어서 대기자 비교집단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실제적인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후에는 가능하다면 비교집단을 둬으로써 처치

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를 통해 이 프로그램 실시로 어떠한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부모 교육이 어머니에게만 국한되게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양육 과정에서 점점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으로 사례를 확대하여 치료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가능하다면 부모-자녀 상호작용 미술치료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옥려 (2007).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중재효과에 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1), 29-49.
- 김선현, 장혜순 (2008). 유아동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경.
- 문성원 (2003).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1 (K-SSRS: 중고생용 1)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35-258.
- 박선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 박수정, 최연실 (200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521-2538.
- 신민자, 이진숙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기개념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2), 1-16.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옥경, 김연수 (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학 연구 논총, 11, 115-147.
- 윤선영, 구영진, 전진아, 현명호, 김효창 (2007). ADHD 아동에 대한 사회기술 훈련과 부모 교육 병합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29-545.
- 이숙 (2006). 부모개입을 통한 효율적인 아동상담 모델.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 25-36.
- 주리에 (2000). 미술치료는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통계청 (2008).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이혼 편).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0). 201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서울: 통계청.
- 하은혜 (2000). 문제행동 자녀를 둔 우울한 어머니에 대한 인지행동 집단치료의 효과.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nastopoulos, A. D., Shelton, T. L., DuPaul, G. J., & Guevremont, D. C. (1993). Parent training for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ts impact on parent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5), 581-596.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 223-229.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Manual for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American Guidance Service.

원고접수일: 2010년 11월 20일

게재결정일: 2010년 12월 7일

Preliminary Study on the Combined Treatment of Parent Education and Group Art Therapy for Multi-cultural Children's Mental Health

Jee Eun Lee

Mi Ryung Han

Eun Jin Chang

Phillips Academy Andover, USA

Daegu Cyber University

Korean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combined art therapy and parent education program on the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of multi-cultural children, as well as on the parenting efficacy. A ten-session group art therapy program (two 1.5-hour sessions per week) was conducted for six elementary school children ranging in age from 8 to 11. For the parents of those children, a four-session parent education program (one 2-hour session per week) was held. Prior and subsequent to interventions, assessments for the three dependent variables were conducted using standardized test measures. It was found that the childr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ll the subcategories of self-esteem, such as general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family self-esteem, and school self-esteem. Moreover, they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ll the subcategories of social skills, such as assertiveness, empathy, cooperation, and self-control. As for the parents' parenting efficacy, cognitive effica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but their frustration/anxiety level and interests in parental role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By conducting children's art therapy program and parent education program simultaneously in a parallel process, this research was the first to develop a combined treatment for newly emerg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eywords: multi-cultural children, art therapy, parent education, combined treatment, mental health